



제2회 러시아사회복지사대회 참가

사회복지사, 세계로 눈을 뜨자!

이자영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5년 제18회 아시아태평양 사회복지사·교육자 대회를 통해 처음 시작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애플 프로젝트(Asia Pacific haPpy chiLdren & family Ech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의 협력을 다짐하며 파키스탄 지진구호활동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하였다. 그리고 2006년 8월, 독일의 사회복지사대회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2006년 10월, 서울 애플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더 많은 나라들과의 교류를 약속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러시아 사회복지사대회의 참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러시아사회복지사협회의 협력을 다짐하면서 러시아에 한국사회복지의 활동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키르기스스탄 애플 캠프 현판식

러시아사회복지사대회 참석에 앞서 키르기스스탄 사회복지사협회의 요청으로 키르기스스탄을 먼저 방문하게 되었다. 10시간의 비행으로 모스크바에 도착, 다시 3시간을 더 비행하여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쉬켄에 도착하였다. 우리 일행은 11월 25일 오전 6시 공항에서 Bishkek Humanistic Univ.의 교수인 Almaz를 만나 키르기스스탄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마련해 준 숙소로 옮겨 협회장인 Vrea와 직원들을 만날 수 있다. 공식 일정은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및 한국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및 키르기스스탄의 사회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교류확대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후 키르기스스탄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애플 캠프 현판식을 가졌다. 오후에는 Bishkek Humanistic Univ.를 방문하여 학장을 만나고 사회복지학과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김성이, 이영철, 윤동성 회장의 강연이 있었다. 토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방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강연은 한국사회복지사들의 활동과 애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고려인이 대표로 있는 Jayil Women Boarding House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여성정신장애인보호시설로 시설장인 고려인, 고려인 시장과 함께 어떤 부분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하고 특히, 전남사회복지사협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키르기스스탄과 전남사회복지사협회, 교류협정 체결

다음날인 26일에 오전에는 Bishkek Humanistic Univ. 부속 장애인센터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대학 기숙사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학생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컴퓨터 및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키르기스스탄사회복지사협회의 공식만찬이 있어 rural 지역을 방문하여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과 전남사회복지사협회가 공식적으로 교류협정서를 체결하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모스크바로 옮겼다. 회색빛의 겨울이 유명한 모스크바지만 우리가 방문하였을 때는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았다. 공항에서 Moscow state social Univ.의 한국어학과 고영철 교수와 학생을 만날 수 있





▲키르기스스탄 애플 캠프 현판식.
▶키르기스스탄사회복지사협회 Vrea 회장의 환영만찬회 참가한 대표단.

었다. 호텔에서 잠시 여정을 풀고 저녁에는 러시아사회복지사협회장 Antonina를 만나 환영식을 가졌다. 첫날 저녁은 우리측에서 초청하는 저녁이었고 러시아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우호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모스크바에서 둘째 날인 28일 오전에는 러시아정부에서 운영하는 트리치콥스카야 갤러리를 둘러보았다. 러시아의 역사의 흐름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위주로 전시되어 있었다. 오후에는 Moscow state social Univ.를 방문하여 고영철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학과 수업시간에 참석, 강의를 하였다. 강의 후 사회대학과장 및 부총장을 만나 한국 대학과의 교류에 대해 논의하고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및 광주대학과 정식으로 교류협약을 맺었다. 저녁에는 투바공화국의 영부인초청 환영 만찬에 참석하였는데 만찬에는 러시아사회복지사협회장 Antonina와 투바공화국 영무인 및 외무부장관, 그리고 러시아사회복지사대회 영국관계자 부부가 참석하였다. 서로간의 친목을 다지고 특히 투바공화국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교류 가능성과 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러시아사회복지사대회에서 애플 프로젝트 소개

29일 셋째날은 공식행사인 제2회 러시아사회복지사대회가

시작되었다. 오전 9시부터 등록이 시작되어 각 대표들의 환영 및 축하 인사가 이어졌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표로 김성이 회장의 주제 강연이 있었다. 주제는 'Social Solidarity'로 애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러시아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회로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해 러시아 전역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주제 강연 후 러시아협회장에게 애플 캠프 현판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각 지역 및 UN 대표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저녁에는 환영만찬이 진행되어 참여자들이 서로 교류를 하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회 둘째 날은 섹션별로 장소가 구분되어 소규모 회의가 진행되었다. 김성이 회장은 외무부에서 진행되는 섹션 11에 이영철, 윤동성 회장은 사회보장국에서 진행되는 섹션 2에 참석하였다. 소규모 회의는

20-30명 정도로 구성되었으며 각국의 사회복지사들의 자신의 지역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소개를 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외무부에서 진행된 섹션 11에는 외무부 장관이 함께 참석하여 러시아에서 실시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의 교류방향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대회 총평 및 시상식이 진행되었고 이것으로 공식적인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전의 받은 도움, 이제는 다른 국가에 돌려줘야

이번 키르기스스탄 및 러시아 대회 참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과 활동을 세계에 알리고 지구촌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전 우리나라가 외국의 도움을 받았던 것에서 이제는 우리도 다른 국가들을 도와야 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애플 프로젝트와 국제교류에 큰 안목을 가지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